원각사 반산 스님, 수행환경 수호 '단식 돌입'

8월 22일 기자 간담회서 "목숨 걸어 도량 지킬 것"

양산시 '석계산업단지' 개발로 소음·분진 등 도량 피해 발생
"市, 피해보상 약속했으나 무시" 사찰 기능 마비로 이주대책 촉구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은 "원각사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단식으로 투쟁하고 소신공양도 불사할 것"이라며 양산시에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양산 통도사 말사인 원각사 주지 반산 스님이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반산 스님은 8월 22일 통도사 산문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소신공양도 불사할 것"이라며 "힘없는 수행자가 부처님 도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원각사는 현재 양산시가 추진하는 석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다. 석계산업단지는 양산시와 태영건설, 경남은행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인 ㈜석계산단이 2018년 6월까지 2,190억 원을 들여 상북면 석계리 일대 84만㎡ 부지에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석계산단은 127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전기와 전자, 기계업종 등이 입주한다.

문제는 석계산업단지 진입로 4차선 노선이 원각사로부터 20m 거리에 인접, 안전 위협은 물론 발파 작업으로 인해 분진과 소음, 사찰 균열 등을 일으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찰 뒤 천성산 수목이 벌목돼 지역민들을 위해 '힐링 장소'의 역할을 했던 산사의 기능마저 마비됐다.

반산 스님은 "공사에 앞서 진입로 노선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노선 변경 사실 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부실행정을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4월 17일 양산시청 회의실에서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김용기 문화관광과장, 서양우 석계산단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원각사 피해 보상 합의 사항을 약속 받았으나 지금은 침묵과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고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산 스님은 그동안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석계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원각사 수행환경 수호법회'를 진행하며 이주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반산 스님은 7월 25일에는 양산시청 앞 공터에 시위용 천막을 설치했지만 강제 철거를 당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또 8월 16일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반산 스님은 "천막 철거 당시 양산시는 '그동안 행정 운영 중 천막 시위는 관례에 없었다. 봐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폭력적인 철거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양산시의 태도에서 힘없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수행도량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공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법부에도 노선변경과 약속 위반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제시했지만 힘없는 사찰의 편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원각사의 이주를 요청했다. 스님은 "수행 및 힐링 도량으로서 원각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이주만이 답"이라며 "원각사 뒷산인 천성산은 마구 파헤쳐졌고 사찰로 연결된 수행환경은 모두 파괴됐다. 1979년 그 이전부터 마을 주민의 쉼터였던 원각사는 통도사 말사로 부처님 도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일심사 "기복신앙 벗어난 성숙한 불자 양성"

8월 19일 은해사 부산 포교당 일심사 개원법회


일심사는 8월 19일 법당에서 '센텀 일심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부산 포교당 센텀 일심사가 문을 열었다. 주지 혜룡 스님은 앞으로 반야 참회 수행으로 기복신앙을 벗어난 성숙한 불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조선불교유신론' 강의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실을 불자들과 함께 짚어보고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심사(주지 혜룡)는 8월 19일 법당에서 '센텀 일심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조계종 종단협 사무처장 성공 스님, 은해사 7직 소임 스님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원 법회는 주지 스님의 인사말과 돈관 스님의 법문, 성공 스님·윤원철 교수·김종화 이사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돈관 스님은 "시대에 따라 종교가 변해야 한다.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포교당을 연 혜룡 스님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며 "인연을 통해 부처가 되고 악인이 된다. 혜룡 스님과 일심사와 인연이 된 모든 분들이 지혜를 얻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혜룡 스님은 "일심사는 불교 신행의 기초를 다지는 곳으로 참회불교운동을 통해 뿌리 깊은 신심을 정착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아울러 불자들이 현대사회 속 불교의 역할과 바른 자세를 알도록 사회문제와 역사의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도량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앞으로 일심사는 반야참회와 조선불교유신론에 대한 정기 특별강의를 연다. 반야참회는 불교신행의 기초인 참회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참회법으로 수행한다. 혜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수행법을 지도한다. 반야참회 강의는 8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이며 3개월간 진행된다.

조선불교유신론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다. 9월 6일 개강해 2개월간 진행된다. 〈조선불교유신론〉은 백년전 조선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저술이다. 주지 혜룡 스님은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불교 개혁운동가를 연구했다. 이 강의를 통해 혜룡 스님은 현대불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일러준다.

이외 불교입문자를 위한 기초교리 강의, 토요법회 및 저녁 법회 등도 진행한다.

혜룡 스님은 해인사 지족암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를 수료했다. 하동 쌍계사 강사 및 학감, 교무국장을 역임했으며 구례 화엄사 강사, 학감을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포교사회, 다양한 日曜 포교 '눈길'

서병수 부산시장 초청 특강 '부산의 글로벌 미래 제시'



금정총림 범어사포교사회가 사회 명사를 초청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듣는 특강을 마련했다.

범어사포교사회(회장 이종찬)는 8월 2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명사 초청 특강 일요법회를 열었다. 명사 초청 특강엔 서병수 부산시장〈사진〉이 찾아 '부산이 꿈꾸는 미래, 글로벌시티'를 주제로 강의했다. 서병수 시장은 부산의 현재 과제를 '일자리 창출'이라 설명하고, 공무원 체제 확인 및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서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 미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각도의 변화를 맞는다. 부산의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포교사회는 매주 일요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17년 역사의 일요법회는 범어사포교사회가 주최로 범어사 신도가 아닌 등산객, 방문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는 포교 법석이다. 범어사포교사회는 법석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회원가입에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로 7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하성미 기자

수진 스님, 동명대에 1억2천만 원 쾌척

"불교문화 중흥과 한국불교 세계화 도움 되길"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23일 동명대 대학본부경영관 301호에서 대학 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23일 동명대 대학본부경영관 301호에서 동명대 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수진 스님은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인 고(故) 동명 강석진 선생의 불심과 나눔 실천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지난 2010년 종립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최초로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했고, 대학 내에 별도 전담기구로 재학생과 일반인의 인성교육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명대가 불교문화 중흥과 한국 불교 세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정홍섭 총장은 "동명대에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을 지속적으로 쾌척하시는 수진 스님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동명대가 한국불교의 글로벌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했다.

하성미 기자

홍법사, 평생교육 문화포교의 장으로 성장

8월 22일 한나래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개원


홍법사는 8월 22일 경내에서 '한나래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현판식.

수행과 문화 포교의 장으로 활동하는 홍법사가 평생교육원 개원 선포식을 진행했다. 홍법사는 평생교육으로 지역민에게 특화된 힐링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8월 22일 경내에서 '한나래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심산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원정희 부산 금정구청장과 신도 300여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홍법사 평생교육원을 담당할 김민성 원장이 참여해 계획 및 포부를 전했다.

김민성 원장은 "홍법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맞춰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힐링가드너·명상·힐링 등 생태문화를 핵심 콘셉트로 특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지수화풍 지장보살

회향선원 주지 스님은 불사를 결심하고 도량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의증을 내던중 지장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다. 이후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를 세번 마치니 다시 지장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천일기도 3번이 끝나면 만불자에게 나를 내놓아라. 병고액난자가 내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주리라. 내가 지수화풍 지장보살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회향선원에 오셔서 지수화풍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시고 기도하시어 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성일 합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봉현리 산 44-1)
010-3771-7575



봉행 옥천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옥천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옥천사 (구,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옥천사 (구,천장사)
H·P 010-5960-2085